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대사회의 제의문화

A Study on the Aspect of the Ancient Ritual in Samgukyusa()

저자
(Authors) 박진태
Park Jin-tae

출처
(Source) [비교민속학 21](#), 2001.8, 367-394(28 pages)
[ASIAN COMPARATIVE FOLKLORE 21](#), 2001.8, 367-394(28 pages)

발행처
(Publisher) [비교민속학회](#)
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99159>

APA Style 박진태 (2001).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대사회의 제의문화. [비교민속학](#), 21, 367-39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5 11:4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대사회의 제의문화

박진태*

- I. 머리말
- II. 삼국유사의 설화를 통해 본 굿의 양상
- III. 삼국유사의 굿설화에 나타난 신성성의 발현양상
- IV. 맺음말

I. 머리말

신화의 기원과 발생에 대해서는 자연 현상을 의인화시킨 것, 원시문화의 흔적, 꿈이나 무의식의 산물, 풍요제의(fertility ritual)나 성년식(initiation ceremony) 같은 제의의 구술적 상관물(oral correlative) 등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¹⁾, 이 중에서 제의 학파의 입장을 취할 때 『삼국유사』에 기재되어 있는 상당수의 설화들이 고대사회의 굿과 관련이 있거나 대응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전승되거나 또는 적어도 20세기까지 전승되었던 굿은 사체에 의해 무

* 대구대학교 교수

1) 장덕순 외 3인 공저,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20-22쪽 참조

당굿, 농악대굿, 탈광대굿으로 삼분할 수 있는데, 이들 굿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영신 - 오신(娛神) - 송신>으로 말해지지만, 하회별신굿이나 동해안별신굿은 화해굿이 추가되어 있고, 강릉단오굿과 영산 문호장굿과 영양지방 주실마을의 서낭굿은 싸움굿과 화해굿이 모두 들어있다.

그리하여 굿의 확대형을 <내림굿(맞이굿)→신유(神遊)→싸움굿→화해굿(신성결혼)→전송굿(환후굿)>으로 볼 수 있다.²⁾ 그리고 맞이굿과 전송굿이 오신(娛神) 내지는 신유의식을 축으로 하여 대립되고, 싸움굿과 화해굿도 대립적인 쌍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굿이란 신을 맞이해서(또는 신이 내려와) 신을 즐겁게 하고(또는 신정을 펴고), 적대적인 인간이나 신과 싸움을 벌이거나 화해하게 한 뒤 돌려보내는(또는 되돌아가는) 순환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신유 내지 신정(神政)은 대개는 신이 제물을 흠향하거나 인간으로부터 공물을 헌납받고 인간에게 명복을 내리지만, 해인사 천왕굿에서는 부정한 인간에게 신벌을 내리고, 하회별신굿에서는 탈놀이를 봉헌받는다. 화해굿은 갈등의 해소로서의 화해도 하지만 신성결혼을 통해서 융합되는 경우도 많고, 싸움굿은 화해굿과 결합해서 ‘갈등의 표출 - 갈등의 해소’로 유기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될 수도 있지만, 맞이굿, 신정, 송신굿과 결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영산 문호장굿에서는 문호장신이 딸의 신당에 갈 때 호장과 수노(首奴)와 무녀가 경마시합을 벌였으며, 동해안 별신굿의 도리강관고덕이놀이에서는 사또가 부임하여 향리와 관노를 점고할 때 싸움굿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다.

이 글에서는 맞이굿, 신정(신유의식), 싸움굿, 화해굿, 전송굿과 같은 단위굿을 조합하여 굿을 하는 과정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신과 신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재조정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삼국유사의 설화 중에서 굿의 순차구조와 대응되거나 굿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들을 ‘굿설화’로 범주화하고, 굿의 구성구조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굿설화에 반영된 굿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굿설화에서 신성성이 발현(發顯)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종교적인, 그리고 역사적

2) 박진태, 『탈놀이의 기원과 구조』, 새문사, 1990, 34-67쪽과 『한국민속극연구』, 새문사, 1998, 10-21쪽 참조

인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는 불교설화만이 아니라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토착신앙을 반영한 설화를 포함해서 토착신앙과 불교가 습합된 양상을 보이는 설화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설화를 분석하면 토착신앙의 시대에서 불교의 시대로 변천해온 고대사회의 종교사 내지는 제의사(祭儀史)를 재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II. 삼국유사의 설화를 통해 본 굿의 양상

굿설화는 제신(祭神)의 신격에 따라 천신계통, 수신계통, 산신계통, 지신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네 계통의 굿설화를 분석하여 굿의 양상을 살펴에 있어서 지신계통은 작품이 하나밖에 안 되므로 산신계통에 묶어서 다룬다.

1. 천신(天神) 계통의 설화를 통해 본 굿

천신계통 굿설화로는 환웅신화, 박혁거세신화, 김수로신화, 김알지신화, 연오랑·세오녀설화, 천사옥대설화 등이 있다.

1) 환웅신화

단군신화³⁾는 환웅을 중심으로 보면 환웅신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환웅신화의 서사적 전개는 굿의 5단계 구성구조(plot-structure)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 바 먼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2 <고조선>조.

- ①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넘보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므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三危太伯)을 굽어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했다.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라 부르니, 이가 곧 환웅 천왕(桓雄天王)이다.
- ②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을 주관하는 등 무릇 인간세상 360여 가지 일의 주관자로 세상에 머물면서 다스렸다.
- ③ 이때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신이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곰과 호랑이가 얻어 먹고 21일 동안 금기 생활을 했는데, 곰은 여자몸으로 변했으나, 호랑이는 금기 생활을 능히 하지 못해 여자로 변하지 못했다.
- ④ 웅녀(熊女)는 혼인할 상대가 없으므로 매양 신단수 아래 가서 잉태하게 해달라고 주원(呪願)했다. 환웅이 이에 거짓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배어 낳게 하고 단군왕검이라 불렀다.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우주목(宇宙木) 내지 세계수(世界樹)인데, 환웅이 이 나무를 타고 하강하여 신시를 열고, 풍백·우사·운사를 직능신으로 거느리고 신정(神政)을 폈으며, 이러한 환웅을 천왕(天王)이라 한 것은 해모수를 천왕랑(天王郎)이라 부른 사실과 함께 오늘날 무(巫)국의 천왕(天王)국과 맥락을 같이한다.

환웅천왕과 웅녀의 신성 결혼은 곰의 입굴(入窟)과 변신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고대 사회의 신부 후보자가 <격리 - 변화 - 재수용>의 절차로 치른 성년식의 표현이거나⁴⁾, 수렵문화적인 곰의 변신담(變身譚)이 농경문화적인 성년식이나 재생제의와 융합된 것으로⁵⁾ 보고, 또 환웅이 신단수를 타고 하강한 것도 입무식(入巫式)의 나무타기 모티프로 본다면, 환웅신화는 ‘입사식(入社式) 신참자가

4)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6, 57쪽.

5)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84, 137-146쪽.

입사식을 겪으면서 결혼하게 되는 절차의 구술상관물⁶⁾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천부신(天父神) 환웅과 지모신(地母神) 웅녀의 신성결혼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연(再演)하는 곳으로 보면 화해국 내지 양주합심(兩主合心)국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태백산의 신단수에서 환웅천왕을 맞이하고, 동굴⁷⁾에서 웅녀신을 맞이하여 화해 동침시키는 곳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웅천왕 맞이국은 조선시대에 청안의 장압산 마루에 있는 신수에서 국사신 부부신을 맞이하여 고을로 내려와 제사를 지낸 뒤 되돌려보냈다는 사실⁸⁾을 통해서, 웅녀신맞이국은 고구려에서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 사실⁹⁾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다.

요컨대 환웅신화를 통해서 천신의 내림국과 신유(신정)의식, 지신(수혈신)맞이국 및 천신과의 화해국(양주합심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곰과 호랑이의 경쟁담을 통해서 농경신과 수렵신의 싸움국까지도 추정할 수 있다.¹⁰⁾

2) 박혁거세신화

박혁거세(朴赫居世신화¹¹⁾)도 국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6)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81-82쪽.
- 7) 여신의 신당이 동굴인 사례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이야진에서 발견되는데, 남서당에 들렀다가 여서낭을 모셔와서 바닷가 국청에서 국을 한다. 1987. 10. 11. 현지 주민과 면담 조사.
- 8) 『동국세시기』 3월 월내(月內). “淸安俗三月初 縣首率吏邑人 迎國師神夫婦 於東面長鴨山上大樹 入于邑內用巫覡具酒食鍾鼓喧轟 行神祀於縣衙及各廳 至甘餘日後 還其神於樹 間二年行之.”
- 9)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 還於國東上祭之 置木隧於神坐” 『三國志』 魏志 東夷傳. 김해중,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 일조각, 1982, 18-19쪽.
수신(隧神)이 여신인지 남신인지는 불분명한데, 고구려의 부여신의 신체(神體)가 나무로 새긴 부인상(刻木作婦人像)인 점(『삼국사기』, 잡지(雜志), <제사>)은 <부여신 - 유화 - 곡모신 - 부인상>의 연결고리를 성립시키지만, 주몽이 대동강의 조천석(朝天石)과 모란봉의 기린굴을 통하여 천상계와 인간계를 왕래했다는 전설(『신증동국여지승람』)은 굴의 신을 시조신 내지 고등신(高登神)인 주몽으로 볼 소지를 마련한다.
- 10) 이 같은 관점을 취하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本紀)의 유리왕 전설에서 화화(禾媧)와 치화(雉媧)의 싸움도 유리왕과의 결혼에 따른 싸움국일 개연성이 있다.

- ① 전한 지절(地節) 원년 임자 3월 초하루에 6부의 조상들이 각각 자제를 거느리고 알천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길, “우리들은 위로 임금에 없어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니, 백성이 모두 제멋대로여서 욕심만 부리니,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을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했다. 이에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楊山) 아래 나정(蘿井) 가에 이상한 기운이 번개빛같이 땅에 내리비치고, 백마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형상이 있었다. 찾아가 살펴보니 하나의 붉은 알(또는 푸르고 큰 알)이 있었는데, 말은 사람을 보더니 길게 울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깨니 동남(童男)이 나왔는데, 외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 ② 이때 사람들이 다투어 치하하며 말하길, 이제 천자(天子)가 이미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여자를 찾아 짝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날 사량리(沙梁里) 알영정(閼英井) 가에 계룡(鷄龍)이 나타나 왼쪽 갈비뼈에서 동녀(童女)가 탄생했는데(또는 용이 나타났다가 죽으므로 그 배를 가르고 아이를 얻었다), 외모가 몹시 아름다웠다. 그러나 입술이 닭부리 같아서 월성(月城) 북쪽 개천에서 목욕시키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 ③ 남산 서쪽 기슭에 궁실을 짓고, 두 성스런 아이를 봉양하였다. …… 두 성인이 13세가 되자 …… 남자는 왕이 되고, 여자는 왕후로 삼았다.

6부의 촌장은 이씨(李氏) · 정씨(鄭氏) · 손씨(孫氏) · 최씨(崔氏) · 배씨(裴氏) · 설씨(薛氏) 등 6성의 조상으로서 제각기 산에 하강했는데, 박혁거세는 양산 아래 우물 가에 알의 형상으로 탄강(誕降)했다. 신의 하강처가 산꼭대기에서 이미 산기슭으로 바뀐 것이다. 백마는 천제의 아들 박혁거세가 하늘에서 타고 내려온 천마(天馬) 일텐데, 박혁거세 천자가 해모수 천왕랑이나 환웅 천왕처럼 인태신(人態神)의 모습으로 하강하는 것이 아니고, 알의 모습으로 지상에 출현하는 점에서 대륙 계통의 천신강림신화에 남방 계통의 난생설화(卵生說話)¹²⁾가 접합된 양상을 보인다.

알영은 계룡(鷄龍)¹³⁾의 몸에서 나옴으로써 수모신적 속성을 지니는데, 하늘의

11)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2 <신라시조 혁거세왕>조.

12) 김재봉, 「난생설화의 분포권」, 『문화 인류학』 제4권, 39-53쪽 참조.

13) 『삼국유사』 의해(義解)편 <귀축제사(歸竺諸師)>조의 “天竺人呼海東云 矩矩타에說羅.”

원리를 대변하는 박혁거세와 물의 원리를 대변하는 알영의 신성 결혼이 즉위식과 함께 거행되었으며, 갑자년에 신라를 건국하여 신정(神政)을 펴다가 다시 갑자년에 승천함으로써, 공간적 순환 질서를 통해서는 탄생과 죽음이 천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창조설적 사고방식¹⁴⁾을, 시간적 순환 질서를 통해서는 시초의 완전함과 시초로의 복귀라는 난생설화적 사고방식¹⁵⁾을 드러낸다.

요컨대 박혁거세신화에는 천신맞이굿과 함께 천신과 수신의 화해굿(신혼제)이 표현되어 있다.

3) 김수로신화

김수로신화¹⁶⁾에서 김수로의 하강 대목은 다음과 같다.

- ①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 3월 계욕(禊浴)의 날에 마을의 북쪽 구지붕에서 수상한 소리가 부르길래 2~3백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니, 사람 목소리 같은 것이 모습은 감추고 소리만 내어 말하길, “이곳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했다. 아홉 추장(九干)이 “우리가 있습니다.” 하자, 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물으므로, “구지입니다.”고 대답했다. 또 말하길, “황천(皇天)이 나에게 명령하여 이곳에 내려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임금이 되라 하신 까닭에 이를 위해 내려가는 것이니, 너희들은 반드시 봉우리 꼭대기를 파서 흙을 모으고 노래를 부르길,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면은 구워 먹겠다(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날뛰는 것이니라.” 했다.
- ② 아홉 추장들이 그 말대로 다함께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 ③ 머지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붉은 노끈이 하늘에서 곧장 아래로 드리워져 땅에 닿고, 그 노끈의 아랫부분을 살피니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상자가 있었다. 열

矩咤言鷄也, 예說羅言貴也, 彼土相云 其國敬鷄神而取尊, 故戴矜羽而表飾也”를 통해 신라에 계신(鷄神) 숭배가 있었으며, 계룡은 계신과 용신의 복합신격을 알 수 있다.

14) 이은봉, 「천신강림과 난생신화의 종교적 의미」, 『광장』 10월호, 1985년, 143쪽.

15) 같은 논문, 150-151쪽.

16)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2 <가락국기>조.

고 보니 황금빛 알 여섯이 들어 있는데, 등글기가 해와 같으므로 못 사람들이 모두다 놀래고 기뻐하여 백 번씩 절했다.

- ④ 이어서 돌아오려고 속에 다시 싸서 가슴에 안고 아도간(我刀干)의 집에 돌아와 상 위에 올려 놓고 무리가 각자 흩어졌다.
- ⑤ 만 하루가 지난 다음날 해 뜰 무렵에 무리가 다시 모여 상자를 열어보니 여섯 알이 동자로 변했는데, 용모가 매우 컸다. 이에 상에 앉히고 무리가 절하여 치하하고 공경함을 다했다.

김열규¹⁷⁾는 이것을 <신탁의식(神託儀式)→희생의식→영신의식(迎神儀式)>의 삼 단계로 이루어진 영신제(迎神祭)의 구술상관물로 보고, 김승찬¹⁸⁾은 <신탁의식→거북의식(龜卜儀式)→등극의식>의 구술상관물로 보았으니, 천창(天唱)에 의해 신군(神君)과 아홉 추장이 대화를 주고받는 대목을 신탁의식으로 본 것은 동일한데, 거북이를 불에 구우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행위를 김열규는 영신제의 중추를 이루는 희생 무용 및 유감 주술(類感呪術)에 의한 주가(呪歌)의 가창으로 본 데 반해, 김승찬은 부족 연맹장을 선출할 때 번제(燔祭)에 의한 거북점을 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김열규가 알의 하강하는 대목을 영신의식으로 본 데 비해, 김승찬은 김수로가 3월 보름에 왕위에 등극한 부분까지 연장시켜 <하강과 수용 - 격리 - 재수용 - 등극>의 과정으로 진행된 등극의식으로 풀이한 것이다.

그런데, 하회별신굿을 거행할 때 설달 보름날 산주(山主)가 서낭당에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화수 그릇을 받친 소반을 들게 하고 ‘나림’을 빌어 신의(神意)를 물으면 이윽고 소반이 흔들리고 산주의 물음에 신탁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 같은 신점(神占)에 의해 별신굿 거행 여부에 대한 신의를 확인한 사실¹⁹⁾로 미루어 보아, 가락국기의 천창(天唱)대목을 신탁의식으로 보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봉우리 꼭대기를 파서 흙을 모은 행위는, 부여 추양리(楸陽里)에서 정월

17) 김열규, 『가락국기고(駕洛國記攷)』, 『국어국문학지』 제2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1, 8-9쪽.

18) 김승찬, 『한국상고문화론』, 새문사, 1987, 23-43쪽.

19) 무라야마(村山智順), 『부락제(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32쪽.

2일부터 14일 사이의 산신 하강일에 당산제를 지낼 때, 제사 전날 당산에 정방형으로 높이 한 뼘쯤 황토단(黄土壇)을 쌓고 말뚝을 박고 삼면에 명석을 치고 위의 지붕은 갈대로 덮는 ‘뜸집’을 짓는 사실과²⁰⁾ 대비시킬 때, 신의 하강처인 제단을 조성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노끈이 황토단과 만나는 지점에서 알이 담긴 금상자가 발견된 사실은 지모신의 신당(神堂)인 동굴의 변형인 방에 감금된 유화의 몸에 햇빛이 비치자 수태되어 알을 낳은 사실과 대비시킬 때, 햇빛은 천부신인 해모수가 추상화된 것이므로, <햇빛 - 붉은 노끈 - 해모수 - 천부신>과 <땅 - 동굴, 산, 강 - 유화 - 지모신 내지 수모신>의 연결 고리가 성립되고, 천부신과 지모신의 사이에서 천제(天帝)의 아들이나 손자가 알의 형태로 탄생함을 알 수 있다.²¹⁾ 그리고, 구지기는 천부신[天帝]이 지모신(구지산 산신)에게 아들(김수로)을 낳기를 요구하는 노래로²²⁾ 김수로의 맞이곳에서 가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신이 천제와 감통(感通)하여 아들을 출산하는 것과 천제 아들의 하강이 복합적으로 실현되고, 땅속에 묻힌 곡식의 씨알에서 싹이 나듯, 알이 상자 -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 세계 - 안에서 부화(孵化)하여 동자가 되었으니, 이중 탄생(二重誕生) 또는 재생제의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김수로신화의 첫머리는 영신제(迎神祭)와 출산의례(出產儀禮)가 복합적으로 언어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가락국기에 기록화된 김수로의 일대기에 김수로를 제신(祭神)으로 하는 굿의 절차가 중첩되어 있는 데 기인할 것이다.

20) 황토단과 뜰집을 만들어 놓고 제사날 초저녁에 잠신을 없애는 사신이라 하여 세 동네(넙말, 안말, 새터) 풍물이 당산에 모여 풍물을 치고 각 마을로 내려가면, 제관, 축관, 제물을 진 화주(化主) 내외가 가서 뜰집 황토단에 시루상을 놓고, 그 앞에 따로 제상(祭床)을 차리고, 분향, 재배, 헌작, 축문읽기, 재배, 소지(燒紙), 재배의 순으로 제사를 지낸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농악·풍어제·민요 편)』, 문화재 관리국, 1982, 33쪽, 참조.

21) 주몽신화는 <천제 - 해모수와 유화 - 주몽>의 3대 구조이지만, 김수로신화는 <황천(皇天) - 김수로>의 2대 구조인 바, 주몽신화는 <환인 - 환웅과 웅녀 - 단군>의 단군신화와, 김수로 신화는 <천신 이야기지와 가야산신 정견모주 - 뇌질주일(김수로)>의 대가야 시조신화와 각각 관련된다.

22) “況與王后而居也，比如天之有地，日之有月，陽之有陰。” 『가락국기』, 『삼국유사』.

한편 아도간의 집은 오늘날 마을곳의 도가(都家)집에 해당하며 김수로를 봉안한 임시 신당이 된다.

4) 김알지신화

김알지신화²³⁾는 탈해왕 4년(60년)에 계림에 지춧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에 뻗치고, 그 구름 속에 황금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는 광경을 호공이 탈해왕에게 보고하였는데, 그때 궤 속에서 나온 동남(童男)이 김알지라고 하여,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인 신단수(神壇樹) 아래에서 천신 맞이굿을 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김알지는 경주 김씨의 시조신이고, 계림은 궁성 안의 제당(祭堂)이며, 황금궤는 조령(祖靈) 겸 곡령(穀靈)을 담았던 시조단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림에서의 제의는 김씨 왕가로서의 가정적인 제의와 집단적인 부락제가 복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²⁴⁾

5) 연오랑·세오녀설화

연오랑(延烏郎)·세오녀(細烏女)설화²⁵⁾도 굿 내지 제의와 관련이 있다. 신라 제8대 아달라왕 4년(157년)에 해와 달의 정령인 연오랑과 세오녀가 동해안에서 일본²⁶⁾으로 건너가서 왕과 귀비(貴妃)가 된 이후로 해와 달의 광채가 없어졌을 때 일자(日者)가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 나라에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피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므로 왕이 사자를 보냈으나, 연오랑이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의 비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라고 말해서 세오녀가 짠 비단을 받아다가 영일현(迎日縣) 또는 도기야(都祈野)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그 비단을 국보로 삼아 귀비고(貴妃庫)에 보관

23)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2 <김알지 탈해왕대>조

24) 장주근,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282-283쪽 참조

25)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2 <연오랑세오녀>조

26) 아달라왕 때에는 ‘일본’이라 부르지 않고 ‘왜(倭)’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은 왜국 이 아니라 동해바다 너머에 있는, 일신과 월신이 있는 신성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다.

했다고 한다.

해와 달의 정기인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를 떠났다는 것은 아달라왕 13년 정월 초하룻날에 일식(日蝕)이 있었던 사실을 가리키고, 세오녀가 짝 붉은 비단을 가지고 와서 영일현에서 제사지냈다는 것은 일식이 일어났을 때 붉은 비단을 신체(神體)로 하여 제천의식 내지는 일월맞이굿을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아달라왕이 아들이 없어 수신족(水神族)인 석탈해의 자손인 벌휴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이후로 천신족(天神族)인 박혁거세 후손은 53대 신덕왕(912-917)에 가서야 비로소 왕위를 차지하게 된 사실과 관련시키면, 왕위 계승자의 부재로 정치적 입지가 허약해진 아달라왕이 새로운 형태의 제천의식 내지는 일월맞이굿을 거행하여 반전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6) 천사옥대설화

천사옥대(天賜玉帶)설화²⁷⁾에 의하면, 신라 제26대 진평왕이 즉위한 579년에 천사(天使)가 대궐 뜰에 내려와 “상제께서 나로 하여금 옥대를 전하라 했다”고 말하므로 왕이 무릎을 꿇고 받으니, 천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천신굿을 거행하여 천신이 하강하여 신기대보(神器大寶)인 옥대를 왕에게 전하는 의식을 행한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만파식적설화에 의하면, 문무왕이 동해의 용신이 되어 다른 용을 시켜 제31대 신문왕에게 검은 옥대를 주었다고 하였으니, 용신신앙에 의한 옥대 이전에 천신신앙에 의한 옥대가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2. 수신(水神) 계통의 설화를 통해 본 곳

수신계통 곳설화로는 석탈해신화, 사금갑설화, 만파식적설화, 수로부인설화(해가사 배경설화), 처용설화를 들 수 있다.

27)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2 <천사옥대>조

1) 석탈해신화

석탈해신화²⁸⁾의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복을 치며 환영했으나 석탈해는 상륙하지 않고 아진포로 달아났다.
- ② 어부 아진의석이 까치가 모여 있는 배를 끌어당겨 보니 그 안에 궤가 있었다.
- ③ 배를 숲으로 끌고 가서 훔칠지 길할지 알 수 없어 하늘에 서원을 말하고 궤를 열었다.
- ④ 사내아이가 보물과 노비와 함께 들어있었다.
- ⑤ 사내아이가 말하길 자신은 용성국의 함달과왕과 적녀국의 왕녀 사이에서 알의 형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에 버려진 것이라 했다.
- ⑥ 석탈해가 토함산을 넘어 서라벌로 가서 자신의 조상이 대장장이라는 증거물을 조작하여 호공의 집을 빼앗았다.
- ⑦ 남해왕이 석탈해를 사위로 삼아 아니부인과 결혼시켰다.
- ⑧ 석탈해가 동악(토함산)에 갔을 때 신통력을 발휘하여 샘물을 몰래 마신 하인을 벌주었다.
- ⑨ 석탈해가 죽자 소천구(疏川丘)에 장사지냈다가 그 뼈로 소상(塑像)을 만들어 대궐에 모셨다.
- ⑩ 신의 계시에 따라 동악에 안치했다.
- ⑪ 문무왕 2년(680년)에 현몽에 따라 동악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①~⑤는 석탈해가 해양문화권의 사람으로 바다에서 수신을 맞이하여 나무에 모셔놓는 곳을 하던 집단²⁹⁾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⑨는 석탈해가 시조신으로 숭배된 사실을, ⑩⑪은 토함산의 산신으로 신격이 바뀐 사실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석탈해의 탄생담은 석탈해가 수신동자 내지는 수신숭배족이었음

28)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 <제4 탈해왕>조

29) 일본의 줄다리기 중에서 뱀신의 신체(神體)인 줄을 바다에서 끌어당겨 육지로 올라와 사람이 들어 서로 자기 마을에 모셔갈려고 줄다리를 하다가 한 가운데를 낚으로 빼어 반쪽을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과 관련시킬 수 있다.

을 말하고, 표착담은 수신맞이굿의 구비상관물이고, 소상이야기는 시조묘의 제사나 동약신당 제사의 유래담에 해당한다. 이처럼 석탈해의 신격은 몇 차례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복합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 사금갑설화

사금갑(射琴匣)설화³⁰⁾도 굿과 관련된 설화로 보이는데,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제21대 비처왕(毗處王; 炤智王) 즉위 10년(488년)에 천천정(天泉亭)에 거동했을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쥐가 사람의 말로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보시오” 했다.
- ② 왕은 기사(騎士)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르게 했다. 남쪽 피촌(남산 동쪽 기슭)에 이르러 보니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다. 이것을 한참 보다가 까마귀가 날아간 곳을 잊어버리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 ③ 그때 한 노인이 못 속에서 나와 글을 바쳤는데, 그 겹봉에 “이 글을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고 써어 있었다.
- ④ 기사가 돌아와 왕에게 바치니, 왕이 “두 사람이 죽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열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관(日官)이 “두 사람이라 한 것은 서민(庶民)을 말한 것이요, 한 사람이란 바로 왕을 말한 것입니다”고 아뢰었다. 왕이 뜯어보니 “금갑(琴匣)을 சொ라”고 했을 뿐이다.
- ⑤ 왕이 궁중으로 돌아와 금갑을 쏘니, 그 안에서는 내전에서 분향수도(焚香修道)하던 중이 궁주(宮主)와 간통하고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을 사형시켰다.

비처왕이 행차한 천천정(天泉亭)은 박혁거세가 나정(蘿井)가에 하강하고, 알영부인이 알영정가에서 계룡의 몸 속에서 나온 사실을 떠올릴 때 신이 출현하는 장소, 또는 세속계와 신성계를 연결하는 통로인 우물이 있던 제장(祭場)으로 보인다.

30)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2 <사금갑>조

그리고 쥐가 시키는 대로 왕이 기사(騎士)로 하여금 까마귀를 따라 가게 했더니 연못가에서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다는 말은 비처왕 때 이미 십이지신(十二支神) 신앙에 의해 쥐, 까마귀, 돼지를 서출지(書出池)에서 나온 노옹, 곧 수신(水神)의 사자나 수호신으로 믿었음을 의미한다. 또 서출지의 수신이 종이에 적힌 점괘에 의거해서 궁주와 간통하고 있던 분향수도승을 처형한 사실은 토착적인 수신 숭배 세력이 승려의 부정을 적발하여 불교 세력을 제압하는 계기로 이용한 사실을 의미한다.

요컨대 비처왕 10년(488년)에 십이지신에 속하는 쥐, 까마귀, 돼지, 기사, 노옹(수신), 일관이 연출하는 무교적인 굿이나 탈놀이를 거행하여 승려의 비행을 적발하여 음모를 분쇄한 사건을 계기로 토착신앙은 더욱 입지를 공고히 한 데 반해 불교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것은 법흥왕 14년(527년)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가능해졌던 것이다.

3) 만파식적설화

신라의 용신맞이굿은 삼국유사의 만파식적설화(萬波息笛說話³¹⁾)에서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라 31대 신문대왕이 681년에 즉위하여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안에 감은사(感恩寺)를 세웠다.
- ② 그 이듬해 5월 초하루에 해관(海官) 박숙청이 동해 속에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온다고 보고하므로 일관(日官) 김춘질에게 점을 치게 하니, 용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왕에게 보물을 주려고 하니 바닷가로 나가라고 했다.
- ③ 왕이 7일에 이견대(利見臺)에 나가 산을 바라보고 사자로 하여금 살피게 하니, 산은 마치 거북머리처럼 생겼는데, 산 위에 대나무 하나가 있어 낮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진다고 아뢰었다.

31) 『삼국유사』 제2권 기이 제2 <만파식적>조.

- ④ 왕이 잠은사에 와서 묵고, 그 이튿날 점심 때 보니, 대나무가 합쳐져 하나가 되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7일 동안 어둡다가 16일이 되어 서야 평온해졌다.
- ⑤ 왕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니, 용 한 마리가 검은 옥대를 바쳤다.
- ⑥ 왕이 용에게 대나무가 갈라졌다가 합쳐지는 이유를 물으니, “비유해 말씀드리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란 물건은 합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오니, 성왕께서는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실 징조입니다. 왕께서는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온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이제 대왕의 아버님께서는 바다 속의 큰 용이 되셨고, 김유신은 천신이 되어 두 성인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큰 보물을 보내 시어 나로 하여금 바치게 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⑦ 왕은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주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바다에서 나왔다.
- ⑧ 왕이 대궐로 돌아오자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해 두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오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이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만파식적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대왕암(大王岩) 위에서 용신이 신문왕에게 옥대(玉帶)를 바치고, 또 용신인 문무대왕과 천신인 김유신이 보낸 대나무를 전하면서 피리를 만들어 천하를 다스리면 화평해질 것이라고 신탁을 내린 사실은 신문왕이 대왕암에서 대나무를 신간(神竿)으로 하여 용왕굿을 하고, 용신인 문무왕과 천신인 김유신의 화해굿을 거행할 때, 용신이 내린 무당이 신문왕에게 공수를 내린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대왕암에서 이 같은 굿을 거행한 이유는 신문왕이 용에게 산이 대나무와 함께 갈라졌다가 합쳐지는 연유를 물었을 때에 용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신문왕의 아버지는 용이 되고 김유신은 천신이 되어 두 성인이 마음을 같이하여 대나무를 보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통일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통일 이후에도 김춘추 직계 세력과 김유신 후손 세력이 분열되지 않고 국가수호를 위해 단합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춘추 직계 세력이 왕권을 강화시키며 전제정치를 실시함에 따라 김유신 후손 세력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급기야 혜공왕 15년에 김유신의 혼령이 미추왕의 혼령에게 가서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³²⁾

4) 수로부인설화(해가사의 배경설화)

삼국유사 기이편의 <수로부인>조는 성덕왕(702-737) 때 순정공이 강릉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다. 하나는 절벽 위의 철쭉꽃을 수로부인이 원했지만 수행원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내므로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꽃을 꺾어다 바치면서 헌화가(獻花歌)를 불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해정(臨海亭)에서 음식을 먹을 때 해룡이 나타나 수로부인을 납치해 가므로 순정공이 노인의 말을 좇아 지경 안의 사람들을 모아 해가사(海歌詞)를 부르며 몽둥이로 해안을 두드려서 아내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로의 자태가 절세미인이어서 깊은 산과 큰못을 지날 때마다 신이 나타나 빼앗아갔다(水路姿容絕大,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는 구절은 헌화가를 부른 노인은 산신으로서 해룡과 대립되는 존재임을 시사한다. 산신국은 꽃놀이 형태로 화해국을 연출한 데 반해 해룡 및 해룡과 신성결혼한 수로부인을 맞이하는 용신국은 인간이 용신에게 대거리하는 양상을 띠고 연행된 셈이다. 이것은 가락국의 구지봉에서 김수로신을 맞이할 때 위하적(威嚇的)이고 강제적인 내용의 구지가를 부른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5) 처용설화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의 <처용랑망해사>조에 기재되어 있는 처용설화의 서사단락을 곳의 순차구조에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 『삼국유사』의 <미추왕 죽엽군>조에는 혜공왕 때 김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무덤에서 나와 미추왕의 능으로 들어가 항의하자 혜공왕이 신하를 시켜 김유신에게 사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김유신의 후손이 반혜공왕파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피해를 입고 신원운동을 일으킨 사실을 의미한다.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81, 248-252쪽 참조.

- A. 동해용왕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험강왕 앞에 나타나 무악을 바쳤다.
- B1. 용왕의 아들 하나가 왕을 따라 서라벌에 들어와 정치를 보좌했는데, 왕은 그 이름을 처용이라 했다.
- D1. 왕은 처용에게 미녀를 아내로 삼게 하여 머물게 했다.
- B2. 왕은 처용에게 급간이라는 벼슬을 주었다.
- C1. 처용의 아내가 미인이므로 역신이 흠모하여 사람으로 변신해서 몰래 동침했는데, 처용이 밖에서 돌아와 두 사람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 D2. (역신이) 물러났다.
- C2. 처용가의 가사
- D3. 처용의 얼굴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역신이 항복하고 서원(誓願)을 했다.
- C3. 나라사람들이 처용의 얼굴그림을 문에 붙여 벽사진경(辟邪進慶)했다.

A는 동해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험강왕 앞에 헌신한 것이니 처용맞이굿에 해당한다. 그런데 처용암(처용도)에는 처용당이라는 사당이 있었으나 물결에 휩쓸려 자주 유실되었기 때문에 대안(對岸)의 세죽리(細竹里)로 옮겨져 동제당(洞祭堂)이 되어 있고, 처용암은 옛날 왕이 궁녀들과 놀던 자리라든가, 한 쌍의 용이 섬 근방에서 놀다 돌아가면서 손등 모양의 다리를 해면 아래에 놓고 갔다는 전설 등이 구전되는 것으로 보아,³³⁾ 처용암이 처용맞이굿을 했던 곳터로 보인다.

B1은 처용굿이 이동형태의 굿으로 발전하여 처용맞이의 행렬이 처용암에서 서라벌로 행진해 왔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B2에 의해서 처용이 서라벌에서 신정을 배풀어 왕의 정치를 보좌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³⁴⁾

33) 김택규, 『한국민속문예론』, 일조각, 1980, 197쪽.

34) 험강왕이 동해용자를 처용급간(處容級干)으로 봉한 것은 지신을 지백급간(地伯級干)에 봉한 것과 동귀로서, 조선의 태조(1393년)가 송악성황을 진국공(鎭國公), 이령·안변·완산의 성황을 계국백(啓國伯), 지리·무등·금성·계룡·감악·삼각·백악의 산신과 진주의 성황을 호국백(護國伯), 나머지 신들은 호국신이라 봉호를 내리고, 뒤에 백악을 진국백(鎭國伯)에, 남산을 목덕대왕(木覓大王)에 봉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능화, 「조선무속고」, 『계명』 제19호, 1927, 47-48쪽.

D1은 처용의 신성결혼을 뜻한다. 신에게 신처(神妻)를 바치는 신성결혼의 예로는 요동성의 주몽사(朱蒙祠)에 보장왕 4년에 이세적이 침공해 왔을 때 미녀를 부인신으로 꾸며서 배알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보인다. 또 조선시대에는 개성의 덕물산 최영장군사(崔瑩將軍祠) 안에 장군의 소상(塑像)이 봉안되어 있고, 그 사당 옆에 침실을 짓고 민간의 처녀로 모시게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³⁵⁾ 또 하회별신굿에서는 서낭당의 15세 과부 또는 17세 처녀인 각시신을 위로하기 위해 각시탈을 쓴 각시광대와 선비탈을 쓴 청광대가 혼례식을 올렸다.

C1은 처용과 역신이 미녀를 사이에 두고 갈등관계가 성립되고 처용이 노래와 춤으로 맞서 싸움을 뜻한다. 따라서 처용의 노래와 춤은 주술성을 띠다고 보아야 한다. 처용의 노래와 춤이 주력(呪力)을 지니므로 “창가작무이퇴(唱歌作舞而退)”는 “창가작무(唱歌作舞)”의 주체는 처용, “퇴(退)”의 주체는 역신으로 보고,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자 역신이 물러나다’로 풀이해야 온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C1의 “창가(唱歌)”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C2의 처용가이듯이, D2의 “퇴(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D3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역신이 처용의 앞에 무릎을 꿇고 처용의 덕을 찬미하고 다시는 처용에게 도전하여 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것이 역신이 물러나는 구체적인 장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신이 처용에게 “그대가 노여워하지 않으니 감복하고 아름답게 여긴다(公不見怒感而美之).”라고 한 말은 고려 처용가에서처럼 “회(膾)사갓”으로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이것은 처용이 역신과의 갈등을 대결의 원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화해의 원리에 의해서도 해결하려 한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맞이굿 - 길놀이 - 신혼(神婚) - 신유(神遊) - 싸움굿 - 화해굿>의 순서로 연행되었던 이동형태의 처용굿을 재구할 수 있는 바, 『삼국유사』의 처용설화는 신라 헌강왕대(A.D.875~886)에 연행되었던 처용굿의 구술상관물(口述相關物)일 개연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35) 같은 책, 66쪽.

3. 산신(山神) · 지신(地神) 계통의 설화를 통해 본 굿

산신계통 굿설화로는 수로부인설화(헌화가의 배경설화)와 남산신 · 북악신에 관한 신화가 있고, 지신계통의 굿설화로는 동례전의 지신굿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이 보인다.

1) 수로부인설화(헌화가의 배경설화)

수로부인설화는 헌화가의 배경설화와 해가사의 배경설화가 결합되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폈고, 이번에는 전자를 분석할 차례이다. 산문기록에는 “꽃을 꺾고 또한 노래를 지어 바쳤다(折其花, 亦作歌詞獻之)”라고 하여 노래와 꽃을 동시에 바친 것으로 서술되었는데, 노래의 가사를 보면 “자주빛 바위 가에/ 잡고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로 되어 있어 시제가 미래형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헌화가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불러진 노래가 아니라 굿 속에서 반복적으로 불러진 노래인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여튼 꽃을 주술적인 매개체로 하여 산신과 수로부인이 화합하는 굿을 거행한 것으로 본다면, 헌화가는 시용향악보의 문헌무가 중에서 <대국 3>의 “대국(大國)도 소국(小國)이로다/ 소국도 대국이로다/ 소반(小盤)의 다마산 홍목단(紅牧丹)/ 섯디어 노니져”와 일맥상통한다.

2) 남산신 · 북악신 · 지신신화

삼국유사의 <처용랑 · 망해사>조에는 처용설화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덧붙여져 있다.

- ① 왕이 또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의 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좌우의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왕만이 혼자서 보았다. 사람이 나타나 앞에서 춤을 추니 왕 스스로도 춤을 추면서 형상을 보였다.…(중략)… 혹은 말하기를 신이 먼저 나와서 춤을 추자 그 모습을 살펴 공인(工人)에게 명해서 새기게 하여 후대 사

람들에게 보이게 했기 때문에 상심(象審)이라고 했다고 한다. 혹은 상염무(霜髻舞)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형상에 따라서 이름지은 것이다.

- ② 왕이 또 금강령에 갔을 때 북악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이를 옥도령(玉刀鈴)이라 불렀다.
- ③ 동례전에서 잔치를 할 때에는 지신이 나와서 춤을 추었으므로 지백급간(地伯級干)이라 했다.

헌강왕이 포석정에서 남산신굿을 할 때 남산신의 가면을 쓰고서 상염무를 추었고, 북악에 가서 북악산신굿을 할 때는 옥도령이라는 산신무를 추었다는 것이다. 상염무는 수염이 서리처럼 하얀 노인탈을 쓰고서 추는 춤이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옥도령은 옥으로 만든 칼과 방울을 들고 추는 탈춤이어서 그리 부른 것 같다.

그리고 동례전의 잔치마당의 지신춤을 지백급간이라고 부른 것은 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이 신에게 인간의 관직인 급간직을 제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강화된 왕권에 비해 신의 위상이 격하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Ⅲ. 삼국유사의 굿설화에 나타난 신성성의 발현 양상

굿설화를 제신(祭神)의 신격에 따라 천신계, 수신계, 산신·지신계로 삼분한 분류법에 따라 차례대로 신성성(神聖性)의 발현 양상을 살펴보겠는데,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삼국유사 이외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굿설화나 현재 전승되고 있는 구비신화도 포함시켜 함께 살펴기로 한다.

먼저 천신계 굿설화 중에서 환웅신화와 해모수신화³⁶⁾를 보면, 환웅은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 인간사 360여 가지를 주재하면서 꿈과 호랑이에게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여자로 변신하여 잉태하기를 원하는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왕검을 낳게 하는 권능을 발휘하고, 해모수는 말채찍으로 땅에 금을

36) 황순구 편저, 『한국한문서사시선』, 태학사, 1984, 85-95쪽 참조.

그어 구리궁전을 짓고, 야합을 비난하는 하백과 신통술 겨루기를 하여 제압하고 유희와의 결혼을 승인받는 권능을 발휘한다. 이 두 신화는 전승집단에게 천신에 대한 숭배심과 경외감을 일으키고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환웅신화에서는 환웅에 대한 꿈(웅녀)의 태도가 수용적인 데 반해 해모수신화에서는 해모수가 하백의 저항을 꺾고 정복하는 점에서는 대조적이다.

북방계 주몽신화와 남방계 박혁거세신화·김수로신화·김알지신화는 모두 난생설화 계통이면서 주인공이 천신의 아들³⁷⁾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주몽이 부여의 금와왕과 대소태자의 견제와 탄압을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비해서 박혁거세는 6촌 촌장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등극하고, 김수로는 9간이 환희용약하는 가무를 연행하여 맞이하여 왕위에 올랐고, 김알지는 석탈해에 의해 태자로 책봉된다. 다시 말해서 박혁거세 세력은 왕족이 되고, 양산촌(금량부)의 이씨와 고허촌(사랑부)의 정씨와 대수촌(모량부)의 손씨와 진지촌(통선부)의 최씨와 가리촌(한기부)의 배씨와 고야촌(습비부)의 설씨가 6두품이 되어 골품제 사회를 이루었으며, 김수로는 왕이 된 후 신라의 직제를 따서 9간의 품계를 정하였으며, 석탈해는 김알지를 왕족인 성골에 편입시켰으니, 모두 지배계급의 형성과 통치체제의 제도화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이 박혁거세·김수로·김알지는 기존세력이 상생정신에 의해 수용하여 군신관계나 연합세력을 이루었는데, 이와는 달리 주몽은 기존세력이 상극정신을 가지고 배척하면서 체제와 왕권을 고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혁거세·김수로·김알지·고주몽은 모두 죽어서 시조묘에 봉해져 건국시조신과 씨족시조신이 되는 천신계 영웅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천신계 굿설화의 세 번째 유형은 신기대보설화인데, 연오랑·세오녀설화와 천사옥대설화가 이에 속한다. 세오녀가 짠 비단을 신체로 하여 일월맞이 제사를 지내어 쇠약해진 해와 달의 정기를 회복시켰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라 재8대 아달라왕 때 비단직조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여 일본에까지 수출되었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³⁸⁾

37) 주몽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의 아들이므로 천신의 손자이지만, 여기서는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천신의 아들로 간주한다.

그리고 신라 제26대 진평왕 때 상제(上帝)가 천사를 시켜 옥대를 전하였다는 말은 옥대 제조기술의 개발만이 아니라 제25대 진지왕을 도화녀사건을 빌미로 폐위시키고,³⁹⁾ 그 후임으로 왕위에 오른 진평왕이 진지왕 추종세력을 제압하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옥대를 제조하여 착용하고서 교사(郊社)와 종묘의 제사를 주재함으로써 조상과 국가수호신으로부터 가호를 받으려 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곧 국가적 제사의식에서 사제권을 장악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세오녀가 짠 비단과 진평왕의 옥대를 통하여 신라의 직조기술과 금은세공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신기대보설화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수신계 굿설화도 천신계 설화를 분석한 관점과 방법에 의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용신에 대한 숭배심을 불러일으키는 굿설화로 알영신화, 사금갑설화, 해가사(海歌詞) 배경설화를 들 수 있다.

알영은 용의 몸 속에서 나온 수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박혁거세와 결혼하여 신라의 시조신이 되었고, 석탈해는 호공의 집을 빼앗은 능력과 지혜를 남해왕으로부터 인정받아 사위가 됨으로써 성골에 편입되고 나중에 왕이 되었으며, 사금갑설화에서 서출지의 수신은 비처왕에게 예언을 전하여 목숨을 보전하게 하였으며, 해가사설화에서 문무왕 세력을 상징하는 해룡은 문무왕계가 아니어서 강릉으로 좌

38) 연오랑과 세오녀는 비단직조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였던 것 같다. 그러한 기술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핵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 또는 생명공학 지식의 해외유출과 같은 의미를 띠었기 때문에 왜국과 경쟁을 벌이던 신라로서는 국운의 흥망과도 직결된 심각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신라와 일본 사이의 교역관계가 밝혀져야겠지만, 이러한 추정은 일본 정창원에 일본의 왕실에서 수입했던 신라의 양탄자가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

39) 『삼국유사』의 <도화녀·비형랑>조에 진지왕이 “주색에 빠져 음란하고 정사를 어지럽혀서” 폐위되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가의 도화녀와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정적들이 성골의 피를 더럽혔다는 죄명을 뒤집어써워 축출했던 것 같다. 진지왕은 김춘추의 할아버지이므로 진지왕과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난 비형랑은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龍春)의 불우했던 청소년기의 별명이었던 것 같다.

천되어 가던 순정공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여 수로부인을 빼앗았다가 지역주민의 민심을 장악한 순정공에게 마침내 항복했다.

이처럼 수신계 석탈해는 천신계 호공에게 도전하여 굴복시키는 데 성공하고, 서출지의 수신도 토착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불교세력을 궁중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하는 데 반해서 해룡은 천신계 순정공한테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 용신설화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이다.

다음으로 용의 아들이나 딸에 관한 이야기는 용이 불교에 조복(調伏)되어 그의 아들을 파견하는 처용설화, 황룡사 구층탑설화,⁴⁰⁾ 보양·이목설화⁴¹⁾와, 용이 영웅의 도움을 받고 보은하기 위해 그의 딸을 주는 거타지설화,⁴²⁾ 작제건설화⁴³⁾가 있다.

처용은 동해용왕의 아들로 험강왕에 의해 호법룡으로 조복되어 서라벌에 와서 급간이라는 벼슬을 제수받고 아내와 동침하던 역신(疫神)을 퇴치했다. 황룡사의 호법룡은 중국 대화지(大和池)의 용신의 아들로 범천왕(梵天王)의 명령을 받아 황룡사를 보호하였다. 그리고 보양법사에게 조복된 서해용왕이 파견한 이목이 운문사에 머물면서 법사의 명령을 좇아 비를 내리게 했다. 이처럼 세 설화는 용의 아들이 불교에 조복되어 호법신이 된 연후에 불교신이나 왕이나 승려를 도와서 질병 퇴치, 국가수호, 강우 같은 일을 하는 이야기들이다. 이에 비해서 거타지설화나 작제건설화는 영웅이 허약한 용신을 도와주는 이야기들이다. 거타지는 중국에 가던 도중 증으로 변신하여 서해용을 해치려는 늙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이고 용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 작제건도 아버지를 찾으러 중국으로 가던 도중 부처로 둔갑하여 서해용왕을 괴롭히던 늙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이고 용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이러한 거타지설화나 작제건설화는 서해의 해상권을 먼저 장악한 후백제로부터 신라와 고려가 후백제와의 전쟁을 통하여 해상로를 뚫고 해상권을 탈취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0) 『삼국유사』 제4권 「의해」 제5 <황룡사 구층탑>조.

41) 『삼국유사』 제4권 「의해」 제5 <보양 이목>조.

42) 『삼국유사』 제2권 「기이」 제2 <진성여대왕·거타지>조.

43) 『고려사』 「高麗世系」.

하여튼 용의 아들이나 딸의 이야기는 용신이 불교신, 승려, 왕, 영웅을 보호하고 보좌하는 지위와 역할을 맡게 된 사정을 알려준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용신의 위상이 불교신·승려·왕·영웅보다 낮게 실추된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기대보와 관련된 용신설화로는 만파식적설화가 있다. 동해용신이 된 문무왕이 아들 신문왕에게 옥대와 만파식적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신문왕이 진평왕의 옥대와 다른 옥대를 새로 만듦으로써 춘추무열왕 직계지손의 왕위세습제를 공고하게 다지려고 한 것이며, 신문왕이 만파식적을 만들어 삼국통일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춘추세력과 김유신세력이 통일 후에도 분열되지 말고 계속해서 결속력을 유지해야 나라가 평화롭고 강성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음을 의미한다.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라의 금은세공 기술과 약기제조 기술의 수준은 물론이고, 음악이론을 정치이념에 적용하는 국가경영전략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산신계 굿설화를 보면, 죽어서 토함산의 산신이 되는 석탈해가 생전에 토함산에 갔을 때 ‘요내정(遙乃井)’의 물을 몰래 마신 하인의 입에 표주박이 붙게 하여 응징했다는 이야기나, 산신이 현화가를 불러 순정공의 아내 수로부인을 신처(神妻)로 삼으려 했다는 이야기나, 남산신과 북악신이 신라의 멸망을 예언하여 신라인들을 경계했다는 이야기나 모두 산신의 권능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천신계, 수신계, 산신계 굿설화를 통틀어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유형은 세 가지인 바, 첫째는 신의 권능을 행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의 권위와 위엄에 대한 숭배심과 복종심을 품게 하려는 유형이고, 둘째는 신의 아들(또는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과 신,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위계질서와 이에 기초한 제도와 조직, 그리고 관습이 생성된 과정을 설명하는 유형이고, 셋째는 신이 신기대보를 전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과 기술의 우수성 내지 그것들이 새롭게 창출되거나 전래된 사실을 알려주는 유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천신계와 수신계 굿설화에서는 세 유형이 모두 나타났으나 산신계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자료 중심으로 살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산신굿을 대대적으로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하늘과 바

다는 인간이 살고있는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의 아들(또는 딸)을 파견한다는 상황설정이 가능하지만 산은 지리적으로 가깝게 인접하고 있어서 굳이 산신의 아들(또는 딸)을 파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지, 산신과 관련된 신기대보가 없었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성급한 판단은 내리지 않겠다.

한편 용신설화에서 특히 서해용왕이 허약한 존재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성계의 조선건국에 반대한 지리산 산신 성모천왕이 우투리를 혼련시켜 대적하게 하려 했으나 관군에게 발각되어 실패로 끝났다는 이야기⁴⁴⁾와 함께 오래 전부터 토착신에 대한 신앙심이 불교나 유교에 눌러서 위축된 종교사적 사실을 시사해준다.

IV. 맺음말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설화 중에서 고대사회의 굿 내지 제의를 반영하고 있는 설화는 서사적 전개가 ‘맞이굿 - 신유의식 - 싸움굿 - 화해굿 - 송신굿’과 같은 굿의 구성구조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대응되므로 설화가 굿의 구비상관물일 개연성이 크다. 물론 그러한 대응관계가 바로 굿의 실체를 입증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설화를 통해서 당시에 존재했을 굿의 형태를 추정할 수는 있다. 한편 연오랑·세오녀설화는 특이하게 굿이나 제의를 거행하게 된 동기 내지는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유형 설정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제신(祭神)의 성격에 따른 굿의 종류를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천신굿(환웅)→시조신굿(박혁거세, 김수로, 김알지, 석탈해)→용신굿(문무왕, 처용)’의 순서로 굿의 역사가 전개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신라 건국 초기에 알영이 계룡(鷄龍)의 몸 속에서 나오고, 석탈해가 용성국(龍城國)의 왕자로 태어난 사실은 농

44) 최래옥, 「한국산신의 성격변화 - 지리산산신과 이성계설화를 중심으로 - 」, 『향토문화연구』 창간호,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78에서 산신신앙의 변모에 따라 우투리아기가 신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설에 가까운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경의 용신앙이 호국의 용신앙(문무왕)이나 벽사진경의 용신앙(처용)보다 앞서서 존재했음을 알려주지만, 용신굿이 주신(主神)굿의 위치로 부상한 것은 아무래도 신라의 중·후기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굿을 주재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신성성이 발현되는 양상을 보면, 신이 직접 인간 세상에 출현하는 경우와 신의 아들이나 딸을 파견하는 경우, 그리고 신기대보를 인간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삼분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신의 근본을 밝히고 권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두 번째 유형은 신과 사제자(또는 사제집단)의 관계나 위계질서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 유형은 기술문화의 진보와 이동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에는 무당이나 무당왕(shaman-king)이 신과의 접신능력에 의해서 영통력을 과시하며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고, 다음에는 계급분화가 일어나면서 중간지배계급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계급제도만이 아니라 기술력의 향상과 상징조작에 의거해서 통치하던 종교사와 정치사의 전개과정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굿을 재구성한다든가, 굿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설화와 다른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설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분석작업을 통해 고대의 제의사나 종교사, 또는 의식사나 사회사를 탐구할 필요성을 느낀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최남선 편, 민중서관, 1971)
 『삼국유사』(이민수 옮김, 을유문화사, 1997)
 『고려사』(김종권 역, 범조사, 1963)
 김승찬, 『한국상고문화론』, 새문사, 1987.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6.
 김재봉, 「난생설화의 분포권」, 『문화인류학』 제4권, 1971.

- 박진태, 『탈놀이의 기원과 구조』, 새문사, 1990.
- 박진태, 『한국민속극연구』, 새문사, 1998.
-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81.
- 이능화, 「조선무속고」, 『계명』 제19호, 1927, 47-48쪽.
-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84.
- 이은봉, 「천신강림과 난생신화의 종교적 의미」, 『광장』 10월호, 1985년.
- 최래욱, 「한국산신의 성격변화」, 『향토문화연구』 창간호,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78.
- 황순구 편저, 『한국한문서사시선』, 태학사, 1984.

A Study on the Aspect of the Ancient Ritual in Samgukyusa(三國遺事)

Park, Jin-tae

The plot-structure is verified by the ancient and present rites. the rites consist of the movement of the spirit-pole(the spirit-possessed man, the shaman) and the process of five units ; Naerim-goot(rite of advent), Sinyu(round of calls and praying), Ssaum-goot(rite of conflict), Junsong-goot(rite of ascension). The rites are performed for the gods of heaven, mountain, water and earth. Because the plot-structure of the myths and legends of *Samgukyusa* corresponds to it of the rites. Those myths and legends are assumed to be the correlative of the rites. And those myths and legend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irstly the worship for the god is strengthened by emphasizing the authority of the god. Secondly the relation between a god and a man spreads to the relation between a king and a vassal. Thirdly the god gives the magic treasure to the king for endowing him with the authority of the ruler.